

新嘉坡서원 간행본, 《普度施食之論》^{*}

姜 贊 洙^{**}

<목 차>

1. 머리말
2. 매드허스트의 출판생애와 목판인쇄
3. 규장각 소장 新嘉坡서원본 《普度施食之論》
4. 《普度施食之論》의 서지학적 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소장 고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주목하게 된 新嘉坡서원 간행 목판본 《普度施食之論》을 연구대상으로 하여,¹⁾ 저자 매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1796-1857)의 출판생애, 이 판본에 대한 서지 사항과 가치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19세기 중엽 서양 선교사들이 남양지역에서 이루어놓은 東西印刷文化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는 데에 執筆의 목적을 두려고 한다.

《普度施食之論》은 영국 런던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가 파견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본 판본자료의 열람과 학술적 이용을 허락해 준 서울대 奎章閣과 집필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復旦大學 古籍整理研究所 陳正宏 교수께 지면을 통해 깊은 感謝의 뜻을 표한다.

^{**} 圓光大學校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한중법률연구소 연구위원.

1) 서울대학교도서관 편,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273-274면 참조.

한 중국선교사인 매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가 선교를 목적으로 싱가포르 지역에서 漢文으로 간행한 것이다. 필자가 국내외 도서관장기관의 관련 목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관에만 실물로 소장되어 있고, 국외에는 미국 하버드연경(Harvard-Yenching)도서관 등지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²⁾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 책에 대한 서지사항, 인쇄문화사 내에서의 판본가치 등 문헌학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논의되지 않은 듯하다. 다만 김두웅이 <Medhurst의 《朝鮮偉國字彙》에 대하여>³⁾에서 한국학 관련 저서인 《朝鮮偉國字彙》의 수록 내용과 의의에 대해 검토하였고, 조훈은 <Evangelism in China by Walter H. Medhurst>⁴⁾에서 매드허스트의 동아시아 출판선교 활동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그 외에는 대부분 19세기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선교행적 및 성경번역서의 출판을 다룬 해외 연구논문과 저서 속에 매드허스트의 활동과 업적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稀見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싱가포르 지역 간행 목판본을 서지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西學과 중국 목판 인쇄술이 결합하여 본서의 간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普度施食之論》은 동서양 인쇄문화교류의 산물로서 소위 ‘싱가폴 판본’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판본자료를 제공하고

2) 미국 하버드연경(Harvard-Yenching)도서관의 ‘Harvard-Yenching Missionary Writings in Chinese Microfilms’ 사이트
[<http://www.ttc.edu.sg/csca/epub/guides/hy/hy-c-d.htm>] 참조.

3) 金斗應, <Medhurst의 《朝鮮偉國字彙》에 대하여>, 《國語教育》 제33집, 한국어교육학회, 141-152면 참조.

4) Hoon Cho(조훈), Evangelism in China by Walter H. Medhurst, CHONGSHIN REVIEW 제15집, CHONGSHIN UNIVERSITY(충신대학교), 41-54면 참조.

5)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논문으로는 鄒振環의 <麥都思及其早期中文史地著述>(《復旦學報(社會科學版)》第5期, 復旦大學, 2003); 陳輝의 <麥都思《朝鮮偉國字彙》鉤沉>(《文獻》2006년 第1期, 國家圖書館, 175-182면); 陳輝의 <論早期東亞與歐洲的語言接觸>(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熊月之의 <西學東漸與晚清社會>(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 吳義雄의 <基督教新教傳教士在華南沿海的早期活動研究(1807-1851)>(中山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영국 偉烈亞力的 <1867年以前來華基督教傳教士列傳及著作目録>(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등이 있다.

있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소장 고서에 대한 연구범위를 韓中日 3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매드허스트의 출판생애와 목판인쇄

2.1. 매드허스트의 출판생애 簡介

매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는 한자이름이 ‘華爾特 亨利 麥都思’이고, 호는 ‘墨海老人’⁶⁾이다. 그는 이외에도 ‘중국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愛漢者(Philo-Sinensis)’⁷⁾, 또는 ‘尙德者’⁸⁾, ‘尙德’ 등의 중국식 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매드허스트는 1796년 4월 29일 런던에서 출생하여, 1810년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인트 폴 성당(St. Paul Cathedral School)의 부설학교를 졸업한 뒤 글로스터(Gloucester)一家的 ‘우드(Wood)’라는 인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다. 이 무렵 인도에 파견된 윌리엄 캐리(1761-1834) 선교사와 중국에 파견된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과 윌리엄 미린(William Milne, 1785-1822) 선교사의 활약상이 영국에 전해져 젊은 기독교인 사이에는 아시아로 선교활동을 떠나고자 하는 열풍이 불었다. 1815년 로버트 모리슨

6) 매드허스트는 1843년 중국 상해에 중국 최초로 석판인쇄술을 도입한 출판사인 墨海書館을 창립했는데, ‘墨海老人’은 바로 이 출판사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필명은 그의 저서 *Notices on Chinese grammar* (Batavia, The Mission Press, 1842)에서 사용되었다.

8)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는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27면 참조)의 《三字經》條에서 “In this and many of his subsequent publications, Mr. Medhurst assumed the epithet 尙德者 *Shang tih chay*, ‘One who esteems virtue.’”라고 했는데, 이에 근거하면 ‘尙德者’라는 필명은 1823년 출판된 《三字經》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필명은 《養心神詩》, 《咬嚼吧總論》, 《慶賀新禧文》, 《神天之十條誡註明》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와 윌리엄 밀른은 말라카(Malacca) 지역에 교회와 서원을 건립하기로 했고, 런던 선교회는 이 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번역과 출판 사업에 참여시킬 인쇄공을 모집했다. 이 모집광고를 통해 발탁된 매드허스트는 런던 해크니대학(Hackney College)의 콜린슨(George Collison, 1772-1847)⁹⁾ 박사로부터 중국 官話를 배웠다.

1816년 9월 런던선교회는 매드허스트를 말라카와 페낭(Penang)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모리슨과 미린에게 파견해 이들의 출판선교 사업을 돕도록 결정했다.¹⁰⁾ 1817년 6월 마침내 영국을 떠나 말라카에 도착한 매드허스트는 미린이 세운 인쇄공장을 감독하며 말레이어와 漢語, 閩南語 등 여러 현지 언어를 배웠다.

1819년에 말라카에서 세계지리, 인구, 종교 개황을 문답체로 저술한 그의 첫 번째 漢語교과서인 《地理便童略傳》을 출판



圖1. 매드허스트의 漢譯 장면

했다. 1822년에 바타비아(Batavia) 지역으로 옮겨왔다가 그 이듬해에 印刷坊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조판인쇄술을 이용한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1823년에는 중국의 전통 啓蒙書로 널리 읽혀오던 《三字經》의 문장형식을 본떠 만든 선교서적 《三字經》을 처음 출판했다. 1832년 이후부터는 《Scripture Prints》(1832)과 《踏火之事論(On Walking over the Fire)》(1833), 《神理總論(The Divine Attributes)》(1834) 등 漢字로 된 저서들을 서양의 석판 인쇄술을 이용하여 간행하기 시작했다.

9) 조지 콜린슨(George Collison, 1772-1847)은 영국 조합교회주의자(Congregationalist)로서, 해크니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로버트 모리슨 등 동남아와 중국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많은 선교사들을 가르친 바 있다.

10)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의 서문에는 "The writer of the present volume was sent out by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in 1816, to labour for the benefit of China."라고 적고 있다.

그 후 바타비아 지역으로 옮겨와 머물며, 1832년에는 《福建方言字典(A Dictionary of the Hokkee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을 편찬했다. 1832년 독일 선교사였던 구즐라프가 영국 동인도회사 무역선 암허스트호(Lord Amherst)을 타고 중국, 조선, 일본, 대만 해안을 항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¹¹⁾ 매드허스트는 1835년에 구즐라프의 도움을 받아 함께 다시 이 지역을 항해하여 조선에 오기도 했다.¹²⁾ 1835년에는 《華英語彙(Chinese and English Dictionary)》와 중국어, 조선어, 일본어 어휘집인 《朝鮮偉國字彙》¹³⁾을 편찬했다. 또한 1835년까지 정기간행물인 《察世俗每月統記傳》을 간행했다.

1838년에는 중국편년사와 강역, 인구, 문명, 법률, 언어와 문학, 종교 등 중국의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한 그의 대표저서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를 저술했다.

1842년 8월에 청나라가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난징조약이 맺어져 영국 선교사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1843년에 마침내 중국 상해로 옮겨가 미린(William Charles Milne, 1815-1863), 무어헤드(William Muirhead, 1822-1900), 요셉(Joseph Edkins, 1823-1905) 등 선교사들과 중국 최초로 석인기술을 도입한 출판사인 상해 墨海書館을 창립했고, 淸나라 말기 정치 사

11)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363면 참조.

12) "The new chart of the north east coast of China, published by Horsburg in 1835, had not arrived in China, by the time the expedition sailed. If that had been possessed, much trouble and danger would have been spared, and the voyage rendered more expeditious and effectual. The late Rev. Mr. Stevens, seaman's chaplain, at Whampoa, who had formerly accompanied Mr. Gutzlaff on one of his voyages, embarked with the author; and though imperfectly acquainted with the language, his counsel and experience proved of great assistance."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370면 참조.

13) 陳輝는 <麥都思《朝鮮偉國字彙》鉤沉> (《文獻》 2006년 第1期, 國家圖書館, 175면 참조)에서 "尤其是在中國, 有學者偶爾會提及他曾經翻譯《千字文》, 或是《中韓日語對照》, 然而恰恰是這些不正確的書名, 說明了人們并不十分了解他1835年出版于巴達維亞的 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O WHICH IS ADDED THE THOUSAND CHARACTER CLASSIC, In Chinese and Korean. 其實, 這本辭典本身自有漢文名稱: 《朝鮮偉國字匯》, 其內容的主體是《倭語類解》, 《千字文》只是附加的部分."라고 적고 있다.

상가로 활동한 王韜(1828-1897)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한 《聖經》을 출판했다.

그의 출판선교활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1846년과 1849년에 각각 《聖經》과 《王大海島逸志》의 영문번역본을 출간하는 등 1857년 1월 24일 영국으로 돌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말레카 일대와 중국 상해 지역에서 지속적인 출판 사업을 펼쳤다.¹⁴⁾

2.2. 매드허스트의 목판인쇄

위 소절에서 매드허스트는 어렸을 때 글로스터(Gloucester)一家의 ‘우드(Wood)’라는 인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했고, 출판선교의 필요에 의해 남양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영국에서 습득한 인쇄기술은 당시 서양에서 유행한 석판인쇄술이지 중국 목판인쇄술이 아니었다.

먼저 매드허스트가 自述한 내용을 토대로 그의 初期 인쇄물 제작에 중국 목판인쇄술을 이용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이 목판본으로 간행한 漢譯 서적들이 남양 지역에서 다량으로 나오게 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인 문헌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매드허스트가 남양 지역에서 간행한 여러 서적들은 대부분 영국 선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간행 상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선결과제였다. 그래서 활자, 석판, 목판의 세 가지 인쇄방식에 대한 각각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우리가 雕版, 石版, 活字 등 서로 다른 인쇄방식의 적정 비용을 제시한다면, 기독교와 교육계 후원자들이 이에 대해 보다 순조롭게 결정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

14) 金斗應의 <Mudhurst의 《朝鮮偉國字彙》에 대하여> (《國語教育》 제33집, 한국어교육학회, 143면 참조)에서는 “중국 말로 된 책 59종을 지어 냈고, 마레이 말로 된 책 6종, 영어로 된 책 27종을 지어 냈다.”라고 적고 있다.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이천 부에 달하는 팔절판 크기의 한어성경 등 몇몇 대규모 작업을 함에 있어 제한된 소요비용을 선택해야 했다. 목재, 석재, 금속재 인쇄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소요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활자 인쇄술은 서양인들에게도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쇄방법이었다. 그러나 청 조정은 서양인들이 서양서적을 출판하거나 漢字로 된 서적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활자를 서양인들에게 직접 파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남양 지역 등 중국 외지에서 중국 상인을 통해 활자를 매우 비싼 가격에 몰래 구입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¹⁶⁾ 또한 漢字가 다양한 형태의 문자부호로서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다량의 활자를 제조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다.

세상에 알려진 언어들 가운데 이동식 활자로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중국어로서, 지금껏 솜씨 좋은 유럽 활자기술자들을 괴롭혀 왔다. 수많은 활자 글자를 옮기기 위해 헛되이 시도한 후에야, 중국인들은 목판 위에 原刻하기로 결정했다.¹⁷⁾

중국 인쇄사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비록 漢文 서적의 인쇄에 목판 인쇄가

15) "Perhaps it may lead the friends of Christianity and education more readily to a decision on the subject, were we to state the proportionate cost of the different modes of printing, which have been adopted for the Chinese, viz., xylography, lithography, and typography. And in order to this, we must take a definite number of some large work, say two thousand copies of the Chinese Bible, in octavo; by considering the cost of which, as printed in wood, stone, or metal, we may be able to form a just estimate of the subject."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59면 참조)

16) 洪惟仁, <麥都思《福建方言字典》>, 《臺灣文獻書目題解》第五種 語言類, 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 1996, 197-198면 참조.

17) "Of all the languages in the known world, the most difficult to represent by moveable types, is, without controversy, the Chinese; having hitherto baffled the most skilful European typographers. The Chinese have determined, after trying in vain to render each of their numerous characters moveable, to retain their primitive engraving on wooden blocks."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58면 참조)

활자 인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여러 공정과 기술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매드허스트는 목판 인쇄에 대한 단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목판 인쇄의 단점은 일시적으로 작업하거나 다양한 규격의 책을 인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複本을 새기거나 통폐임(Throw off)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동일한 글자가 만 번 나온다면 이를 반복해 새겨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다른 언어를 중국글자와 결합하는 것도 어렵다. 목판은 어느 한 특정 인쇄면을 인쇄하고 나면 땀감으로 쓰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다. 한편으로 글자를 새긴 목판 표면이 마모되기 전에 흰개미로부터 훼손되기도 쉬웠다. 이 외에도 많은 藏版庫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팔절 크기의 성경을 찍기 위한 목판은 67입방 피트가 있어야 한다. 만약 목판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시키면 각공이 가까이에 있어 빠진 부분을 보충해 주기 전까지는 모든 인쇄를 그르치게 된다.¹⁸⁾

매드허스트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감수하며 그의 초기 인쇄과정에서 대부분 목판 인쇄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는 그가 한문 서적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갖는 목판 인쇄의 효율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아울러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돌며 선교용 소책자를 나눠 주어야 했던 그의 선교목적에 목판 인쇄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雕版 인쇄는 중국 언어 특성에 적합하다는 강점이 있다. 내구성 외에는 유럽의 연판(鉛版)인쇄가 갖고 있는 모든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형식과 크기의 글자를 인쇄하기에 적합하다. 복잡한 기계나 비싼 설비도 필요하지 않다. 목

18) "But the disadvantages of block-printing are, that it is not adapted for ephemeral works, or miscellaneous pieces: neither is it calculated for expedition, in engraving or throwing off copies. The same character must be cut over again, if it should occur ten thousand times. It is difficult, by such a system, to combine other languages with the Chinese. The blocks, after a certain number of copies have been struck off, are of no use but for fire-wood: while they are liable to be destroyed by white ants, before they are worn out. In addition to this, they occupy much room. The blocks for the octavo edition of the Scriptures would occupy sixtyseven cubic feet. If one block be lost or injured, the whole edition is spoiled, unless a type-cutter be at hand, to supply the deficiency."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62면 참조)

판이 한번 새겨지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도 있다. 새로운 판본은 문제없이 여러 차례 인쇄해 낼 수 있으며, 여행 중에는 소량의 목판을 작은 나침반 상자 속에 넣어 두었다가 어디서든 인쇄할 수도 있다.¹⁹⁾

매드허스트는 1838년 편찬한 자서전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에서 1823년에서 1836까지 본인이 漢字로 편찬한 저서목록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간행 시기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²⁰⁾

Name of Books	When Printed	How Printed	size	Number of leaves	Number of Copies
Monthly Magazine	1823-26	Xylography	8vo.	6	83,000
Child's Primer	1825-36	Do.	12mo.	14	2,200
History of Java	1825-34	Do.	8vo.	85	1,630
Doddridge's Rise, 1st part	1826-34	Do.	8vo.	40	3,577
Tract on the New Year	1826-34	Do.	8vo.	7	2,000
Feast of The Tombs	1826-34	Do.	8vo.	7	2,510
Sayings of Jeaus	1826-36	Do.	8vo.	7	2,000
On Feeding the Ghosts	1826-34	Do.	8vo.	8	2,514
On the Sailor's Goddess	1826-33	Do.	8vo.	5	2,325
Exposition of the Moral Law	1826-35	Do.	8vo.	90	3,563

19) "Of xylography, the advantages are that it is suited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language: while it possesses all the advantages of European stereotype, except durability. It is adapted for printing in different forms and sizes of the character. It requires no complicated machinery, or expensive apparatus. The blocks once cut, need no further correction: though they are capable of it, if necessary. New editions may be frequently printed without trouble: and in travelling, a few blocks may be packed in a small compass, and printed from at every stage."(*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60면 참조)

20)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79면 참조.

Various Reprints	1827	Do.	8vo.	18	12,000
Three Character Classic ²¹⁾	1828-35	Do.	8vo.	17	5,210
Miscellaneous Pieces	1828-35	Do.	8vo.	50	2,376
Fraternal Dialogues	1828-34	Do.	8vo.	26	1,100
On Walking over the Fire	1828	Do.	12mo.	5	500
On Walking over the Fire	1833-35	Lithography	12mo.	8	1,800
Various Reprints	1829	Do.	8vo.	30	3,000
Various Reprints	1830	Xylography	8vo.	20	4,000
Tract on Redemption	1829-35	Do.	8vo.	30	4,453
Village Sermons	1829-32	Do.	8vo.	39	700
Important Selections	1834	Do.	8vo.	32	500
Gospel of Mark	1836	Lithography	8vo.	35	1,000
School Book	1828-32	Do.	12mo.	16	1,200
Comparative Chronology	1828	Do.	8vo.	40	1,000
Assembly's Catechism	1832	Do.	8vo.	20	300
Scripture Prints	1832	Lithography	4to.	19	1,000
The Divine Attributes	1833	Do.	12mo.	100	3,000
The Fall and Recovery of Man	1834	Do.	12mo.	100	1,000
Harmony of the Gospels	1834-36	Do.	8vo.	200	3,000
On the Being of a God	1834	Do.	32mo.	8	4,500

www.kci.go.kr

21) 매드허스트는 목록에서 이 책의 간행시기를 '1823-35'로 적고 있는데, 이것은 '1828'년의 오기한 것으로, 본 도표에서는 이를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10여 년 간 漢字로 간행한 서적만 해도 대략 30종에 이르고, 이 중에서 목판본은 19종이나 되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매드허스트의 출판 생애는 “신속하고 정결하게 다양한 형태의 책을 얻고자 했던”²²⁾ 끊임없는 서적 간행 상의 노력과 기독교 사상 전파의 열망 속에 ‘漢字文化圈’에 속해 있으면서도 19세기 초반까지 목판 인쇄의 불모지였던 남양 지역에 향후 ‘싱가폴 판본’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규장각 소장 新嘉坡서원본 《普度施食之論》

3.1. 서지사항

본서의 도서청구번호는 [古1900-21]이다. 전체 1冊 7葉으로 되어 있는 木版本이다.²³⁾ 卷首題에는 ‘普度施食之論’이라고 책명을 적고 있다. 半葉 板框이 폭10.1cm×높이16.5cm이고, 每半葉 9行 26字이다. 無界이며, 四周雙邊이고, 上下向黑魚尾이다. 지질은 皮紙가 사용되었다. 책표지는 짙고 두꺼운 곤색 종이를 사용하여 본서와 같이 엽수가 적은 소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얇은 종이를 책표지로 사용하는 중국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版心 상단에는 ‘特選撮要’,²⁴⁾ 중간에는 ‘普度施食之論’, 하단에는 ‘卷〇’과 葉

22) “Having obtained the means of multiplying books, with speed and neatness, we next require increased facilities for circulating them.”(*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565면 참조)

23)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273-274면 참조)과 이 기관의 웹사이트인(<http://kyujiangak.snu.ac.kr>)에서는 모두 본서를 石印本, 淸版本으로 적고 있다.

24) ‘特選撮要’는 매드허스트의 저서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의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特選撮要每月紀傳》를 간칭한 것으로 보인다. Alexander Wylie의 *Memorials of*

內封 뒷면에는 'Ex Biblioth. Regia Berolinensi'라는 붉은색 圓形의 스탬프 1매와 'ABGEGEBEN PR.ST. BIBLIOTHEK BERLIN'이라는 검은색 방형 스탬프 1매,²⁶⁾ 그리고 '京城帝國大學圖書館'라고 새긴 朱文 方印 1매 등의 장서인이 나란히 찍혀 있다.



圖4. 스탬프(1)



圖5. 스탬프(2)

번란 밖 상단에는 전체 내용에 대한 판독이 어려운 펜글씨 字迹이 있는데, 이 안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1832년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서양선교사 구즐라프를 가리키는 'Carl Gützlaff'²⁷⁾와 본서 저자 'Verf: W. Medhurst'의 인명이 보인다.²⁸⁾ 이 외에도 뒤표지면 좌측 상단에는 도서 분류번호로 보이는 'Libr. Sin. 825'라는 표식이 있다.

26) 이 두 스탬프는 각각 '베를린 왕립 도서관 贈'과 '베를린 프리시아 국립 도서관 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Staatsbiblioth zu Berlin)의 웹사이트 [<http://staatsbibliothek-berlin.de>]에는 이 도서관의 역대로 사용된 증서용 스탬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Ex Biblioth. Regia Berolinensi'라는 圓形 스탬프가 포함되어 있다.

27) 칼 프리드리히(Gützlaff, Karl Friedrich August, 1803-1851)는 덴마크 선교사로서, 동남아시아, 중국을 거쳐 조선에까지 왔던 인물이다. 1834년에는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and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라는 책을 편찬했다. 이 책의 <Journal of a second voyage along the coast of China, &c.> Chapter(vi)에서는 1832년 7월 17일부터 이 해 8월 11일까지 황해도에 처음 상륙한 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충청도 홍주목에 도착하여 조선 조정에게 통상을 요구하는 서한과 함께 한문 성경 두 권을 전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28) 이 필사기에 보이는 'Carl Gützlaff'의 인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Eva-Maria Jansson과 영국 대영박물관의 Stephanie Alder 두 고문서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본 판본의 정확한 간행 시기를 밝혀놓은 문헌기록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다만 본 판본의 內封에서 간행지를 新嘉坡서원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매드허스트의 동료이자 영국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와일리는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에서 본서가 1826년에 바타비아에서 처음 간행된 후 1828년, 1833년, 1834년에 세 차례 더 인쇄되었고, 그 후 싱가포르 지역에서 한 번 더 인쇄되었다고 하였다.²⁹⁾ 이 두 자료에 근거하면, 본서는 대략 1834년 직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3.2. 편찬 동기

《普度施食之論》이 편찬된 과정에는 그 이전에 간행된 《特選撮要每月紀傳》과의 밀접한 선후 관계가 있었다. 매드허스트의 동료였던 영국 선교사 미린은 1815년부터 1821년까지 말라카 지역에서 《察世俗每月統記傳(Chinese Monthly Magazine)》이라는 정기간행물을 펴냈었다. 이 책은 월간잡지 형태의 선교서적으로서, 남양 일대 토착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異敎 사상, 의식 및 관습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수록하였다. 그 안에는 당연히 기독교 사상을 토대로 한 서양문화가 편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기독교를 토착민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매드허스트는 미린을 도와 이 잡지를 함께 간행하다가, 1821년부터 그 뒤를 이어 독자적으로 《特選撮要每月紀傳》을 편찬 간행했다. 바로 이 《特選撮要每月紀傳》에 본인의 설교내용을 漢字로 판각한 《普度施食之論》이 처음 수록되었고,

29) 영국 선교사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ylie, 1815-1887)는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28-29면 참조)에서 “10. 普度施食之論 P’ò t’ò she shī che lún. On Feeding the Ghosts. 8 leaves. Batavia, 1826. This discusses the Buddhist custom of setting out feasts for the hungry spirits, in the middle of the 7th month. It appeared first in the Monthly Magazine, and was reprinted at Batavia, in 1828, 1833, and 1834; and again at Singapore.”라고 적고 있다.

1828년, 1833년, 1834년 세 차례에 걸쳐 바타비아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후 싱가포르 지역에서 또 한 차례 간행되었다.

매드허스트가 목격한 ‘普度施食’은 당시 남양 지역의 토착민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행해지던 불교의식의 하나이다. 원래 음력 7월 보름을 불교에서는 ‘盂蘭節’이라고 하는데, 조상들의 혼령을 천도하라고 하여 흔히 ‘鬼節’이라고도 한다. 이 남양 지역의 토착민들은 이날을 귀신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먹이며 濟度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이에 대해 그는 자서전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의 <Feeding hungry Ghosts>條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먼저 첫 단락에서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물을 공양해야 한다. 무덤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일에 맞춰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물을 공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공양의식은 속죄 또는 달래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해야 하는데, 이 의식은 중국인의 내면세계와는 무관하게 그저 귀신들에게 제물만 바칠 뿐이다. 귀신들은 제물공양의 관습에 따라 제물을 받는다지만, 이로 인해 조상들은 그들의 후손들을 귀찮게 할 수 있다.”, “망령이 제사의식에 참가한 후에도 음식은 줄어들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망령이 음식 맛을 본다고 여기지만 제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중략) 그러나 아! 저 자손 없이 죽은 가련한 영혼들은 의지할 곳 없이 구제받지 못한 채 추위와 허기, 빈곤 속에서 배회해야만 한다.”라고 하며,³⁰⁾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전통유교의 제사의식은 죽은 자를 산 자

30) “According to the precepts of Confucius, children are bound to sacrifice to their deceased ancestors: and at the anniversary of their parent’s death, as well as at the annual feast of the tombs, all persons must present offerings to the manes of their progenitors. These sacrifices are not offered as an atonement or propitiation; the pardon of sin or restoration to the divine favour, do not enter into the minds of the Chinese, whilst performing these duties; but merely the support of the departed individual. The ghosts are supposed to feed upon the provisions offered up; and, in consequence, forbear to annoy their descendants.”. “As the food, however, does not decrease in bulk, after being feasted on by the spirits; the Chinese imagine, that the flavour only is taken away, while the substance remains. (……) But alas! for those poor wretches, who happen to die

로 망상하고 물질적으로만 향유하게 하는 제물공양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자식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중국 전통 宗法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孝'사상에 기초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망혼을 구제하기 위한 의식을 행했는데, 매드허스트는 불교도들이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소위 '보도시식'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했다. "불교도들은 이 보편적 정서의 우세 속에 다양한 미신 행위를 받아들였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거의 모든 장례에서 친족들의 망령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제공된 식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 도움을 청해오는 생존자들을 유도했다. 그러나 스님을 모셔온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스님들은 제물 공양을 할 후세가 없는 가련한 망령을 대신하는 공적인 봉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자비로운 사업으로 앞에 내세우며, 자선의 터전 위에 이 의식을 치르도록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했고, 또한 "정해진 의식일자에 스님들과 제물을 놓기 위한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깃발과 등불을 가까이 늘어놓고, 버림받은 귀신들에게 고하고 징과 북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어 제사장은 기도를 반복하고, 일종의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이는 지옥의 문이 열려 배고픈 귀신들이 베풀어 준 것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여, 불교도의 종교의식이 토착민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미신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³¹⁾

without posterity. Deprived of all sustenance and relief, they wander about in the invisible regions, cold, hungry, and destitute."(*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211-212면 참조)

- 31) "The Buddhists have taken advantage of this prevailing sentiment, and have grounded on it a variety of superstitious services. In the first place, they induce survivors to call in their aid, at almost every funeral; that the souls of their deceased relatives may be released out of purgatory, and be enabled to avail themselves of the provisions presented. But, not content with persuading private families to employ them, these fellows have succeeded in getting up public services, on behalf of the wretched ghosts, who have no posterity to provide for them. This, they put forth, as entirely a benevolent undertaking, and solicit subscriptions for it on charitable grounds.", "On the day fixed for the ceremony, stages are erected: one for the priests, and one for the provisions: flags and

선교사의 신분이었던 그의 눈에 비친 이 전통풍습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의식이자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영혼의 세계를 인간 세상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사후 세계에도 생전에 누려왔던 모든 물질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의 生死觀은 지나치게 물질을 향해 편향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교사상적 요인들은 매드허스트가 《普度施食之論》을 간행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 《普度施食之論》의 서지학적 의의

4.1. 판본학적 의의

규장각에 소장된 《普度施食之論》은 현재 실물이 확인되는 국내 唯一의 新嘉坡서원 간행 목판본이다. 이러한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짐으로써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싱가포르 판본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문헌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³²⁾

싱가폴은 1820년대부터 이미 광둥, 복건지역으로부터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해온 화교지역이자 말레이·바타비아와 더불어 많은 서적들을 찍어낸 주요 漢籍 간행지역이었다. 본서는 비록 한 서양선교사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선교

lanterns are displayed near, while gongs and drums are beaten, to give notice to the forlorn ghosts, that a rich feast is provided for them; and then the priests set to work to repeat their prayers, and move their fingers in a peculiar way, by which means they believe the gates of hell are opened, and the hungry ghosts come forth to receive the boon.”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212면 참조)

32) 熊月之는 《西學東漸與晚清社會》에서 남양 지역 간행물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원인에 대해 “一是年深月久，可以尋覓的資料太少；二是從梁啟超的《西學書目表》以來的西學目錄書，包括徐維則的《東西學書錄》，顧燮光的《譯書經眼錄》，對這一段時間西書出版情況，基本沒有述及；三是因為這段時間，在歷史研究中，正好處於時代分割線上，治古代史或中世紀史者，述及這一時段，已是正劇尾聲，毋庸詳論，治近代史者，則因矚目于鴉片戰爭以後的史實，對這一段無心細述。”라고 적고 있다. (上海人民出版社, 1995, 101면 참조)

용 小冊子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대 西學東漸시대의 서막을 여는 福音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서학과 중국목판인쇄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싱가폴 판본’이라는 점에서 판본학적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와 같은 판본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普度施食之論》은 우리에게 ‘東亞漢籍’이라는 판본연구의 범위를 ‘亞細亞漢籍’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싱가폴 판본’의 실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규장각에는 본서와 더불어 싱가포르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드허스트의 또 다른 저서인 《媽祖婆生日之論》[도서소장번호: 古1900-20], 《上帝生日論》[도서소장번호: 古1900-8]의 2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두 고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4.2. 수록내용 상의 특징적 면모

본서는 白話로 된 총 3,779字의 설교문으로서, 이 안에는 27개의 질문을 차례로 던지고 또 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하는 자문자답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普度施食之論》의 內封에는 “제사 지내지 않아야 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이라는 孔子의 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장의 후반부에서는 “(중국)현자는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정해져 있고, 부유하고 귀한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셨지만, 예수의 《성서》에서도 ‘천지만물은 오로지 신만이 관장하신다’라고 하셨다.”³³⁾라고 하였다. 현지 토착민들에게 至高의 인물로 추앙받던 공자를 기독교 耶穌와 연결시키고, 중국의 《論語》를 선교사들이 가져온 《聖經》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동서양의 종교적 이질감과 華夷觀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했던 일관된 의

33) “賢者有云, ‘死生有命, 富貴在天.’ 而耶穌《聖書》, 如此言, ‘天地萬物, 獨一眞神管理者也.’”

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배척하고 있다. “《사서오경》 중에는 ‘보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공자의 가르침에도 ‘시식’이라는 말이 없다.”³⁴⁾라고 하여 기독교 사상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음을 강조한 반면에 “불교 화상들은 이 법도를 만들어 돈을 내놓게 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³⁵⁾라고 하여 비판적인 排佛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 소절에서 언급했듯이 매드허스트의 동료였던 영국 선교사 미린은 1815년부터 1821년까지 말라카 지역에서 《察世俗每月統記傳(Chinese Monthly Magazine)》을 펴냈었고, 매드허스트는 1821년부터 그 뒤를 이어 《特選撮要每月紀傳》을 편찬 간행했다. 바로 이 《特選撮要每月紀傳》에 처음 수록되었던 《普度施食之論》은 남양 토착민들의 “세속을 살피고(察世俗)” 이들을 기독교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宗旨에서 편찬된 것이라고 하겠다.

매드허스트는 본서의 내용 속에 중국 대중소설인 《西遊記》 혹은 익히 膾炙되던 “目連救母” 등의 고사를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이 지역 讀者들을 교화하고자 했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종교·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었다. 아울러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온전해 질 것이다.”³⁶⁾라는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출판선교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5. 맺음말

前述한 내용을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규장각에 소장된 《普度施食之論》은 현재 실물이 확인되는 국내唯

34) “《四書五經》不說普度, 孔子之教無言施食.”

35) “佛教和尚創此法度, 想要聽錢意欲取利.”

36) “全賴耶穌, 則萬事全矣.”

一の 新嘉坡서원 간행 목판본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稀見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싱가포르 판본연구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실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저자 매드허스트는 기독교 사상 전파를 위해 아시아에 파견된 영국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19세기 초반까지 목판 인쇄의 불모지였던 남양 지역에 이른바 ‘싱가폴 판본’을 판각, 유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서의 內封에는 ‘新嘉坡書院藏板’이라고 간행처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매드허스트의 동료이자 영국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와일리는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에서 본서가 1828년, 1833년, 1834년 세 차례에 걸쳐 바타비아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그 후 1834년 이후 싱가포르 지역에서 한 번 더 인쇄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두 자료에 근거하면, 본서는 대략 1834년 직후 싱가포르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넷째, 본서는 白話로 된 총 3,779字의 설교문으로서, 27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에는 현지 토착민들에게 至高의 인물로 추앙받던 공자와 그의 가르침을 담은 《論語》를 서양 기독교 예수와 《聖經》에 비견하여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현지 토착민의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과 華夷觀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했던 일관된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배척했던 早期西學書의 서술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론지어 말하면, 《普度施食之論》은 19세기 초반 서양 선교사 매드허스트의 중국 목판인쇄술의 수용 양상뿐만 아니라, 당시 싱가포르 지역에서의 출판선교활동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규장각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서관소장기관에 소장된 관련 판본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어, 국내학계 내에 ‘싱가폴 판본’에 대한 재평가와 활발한 자리매김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 원문자료】

《普度施食之論》

夫七月半，係唐人普度，大家題緣，以祭陰人，施食餓鬼，言做好心，祀好兄弟，有子女者，清明得祭，惟鰥寡孤獨，七月有祀，以救其餓急焉，故此多人喜從此禮，而甘願出錢，以斷其事也。且今合該議論此事，看其有理無理，若真有理，則勉力復做，但若無理，則急切改之，而勸人莫妄亂從之矣。論及此禮之本意，因何設立，幾時起做，但想無甚憑據，無書可考，四書五經不說普度，孔子之教無言施食，依正經道無祭陰人，在上古時無此規矩，但後來愚人所設，佛教和尚創此法度，想要聽錢意欲取利，教邀百姓來做此事，致自己可得禮錢修金，而食飽居安也。在《西遊》一本小说之書，有畧語論一節奇事，講及目連救母，說其有德，最大功勞，已落地獄，救其母親後上天堂，但此等語，只屬虛談小說之類，通達之人，豈能信之，又何得因此設祭打醮，施食餓鬼，豈不是虛浮之事乎？唐朝未必有目連在世，恐是假傳，一段謊言，做以騙人，就是實有其人，亦不能救母出於地獄，雖是極孝，只能生前事親，死後不能再助，而既落地獄，定不能出，莫言一人就是千萬軍兵，都不能助其一絲之力，而不能免其一日之苦也。目連之德雖是算多，然恐不足以救自己，則安有餘功救別人哉？人家之德，不能分送，錢銀可施，物件可舍，但人之功德，何能相借，豈有此道理乎？若目連之母有罪，死後落地獄，以受刑罰，則必長久住彼，當己之罪，受己之苦，而百千萬年，無得再出，脫於艱難也。依此言之，則目連救母，必是虛文，而無可信，況可從之以爲法於後世乎？且目連之事，今不須言，蓋其過世久，踪跡無留，只須語論今人之爲，常把時菓祭死人鬼，而辦棟排物，施食陰人，或可合理否？夫陰陽分別，生死不同，世人無交陰間之友，而陰間鬼無現於世，兩個分開，相離甚遠，而無一件其所通用也。蓋世人有身，同靈魂相合，但陰人無身，只靈魂獨在，所以不同耳。世人有口能食，有鼻能聞，有肚會餓，有體會冷，故必須食飯穿衣服，纔能養活身體，過日平安矣，至於陰人，則皆非然，其無口・鼻・腹肚，似我世人，其不須食飯，又不會飢餓，其不用着衣，亦不怕寒冷，其不逍睡目，並不致疲倦，蓋陰間人精靈無形，而無似我之粗鹵者也。就是陰間之人有須飲食，亦不着用陽間之物，

而我之菜飯，不能下其腹肚矣。蓋陰間之人只有靈魂，全無身體，則何能食用身體之飯哉？只問你等這久在世，有一時覺靈魂飢餓乎？都係肉身會渴·會餓，而總未聽靈神欲食耳。靈魂能思想·記念，惟不能飲食出恭，此只是身體之事，而靈魂俱無雜之焉。若偶然時有靈心戀慕，愛得好物，似如渴餓，亦不能以飲食充之，乃必尋其所慕，得其所願，纔可能知足矣。可見靈魂總無飲食，所能養心者，非菜飯也。且若世上靈未有食，何況在陰間及地獄內，豈有飲食哉？若身體相合，而互相共交，靈尚無餓，何況過世，靈獨在時，安能有餓乎？皆非也，身體還在，必須養之，惟身體死亡，葬埋於土，毀壞歸無，則無用再養之矣。欲養身體着多用錢，每日勞苦·賺錢積財，都是因為身體之養，但未有人，廢錢以養靈魂，乃從生至死不使一文錢，以買靈神之飲食耳。且若世上無用錢財以養靈魂，則在死後何須用之哉？陰間必定無用錢財，在神面前無使賄賂，雖有銀無數不能買天堂之福，雖積財如山，不能免地獄之苦，乃善有善報，惡有惡報，永遠不息，萬事不脫也。在於世間，或有污官，貪財取利惟死後神天審判絲毫無差，必不貪爾錢財不顧爾體面，乃照公平辦事，正直施報也。依此論之，在陰間無用錢財，無須飲食，衣服房屋，皆無着用，而常人祭鬼，殺牛羊，燒香點燭，俱為虛勞，而在人靈魂無半點利益也。就是親生父母，自己叔兄，既過往後，不須祭祀，蓋其靈魂有人來世，或上天堂，得永遠之福，或落地獄，受無窮之苦，則無再來看，爾祭也。且若自己之父兄，不須祭祀，則何用廢錢，以事別人之父兄哉？若清明之時，大家祭墓，在墓牌之前，獻物誦文，尚無靈在，以接我服事，何況七月半，施食孤鬼，其墳墓不知安在，其靈魂不知何遊，焉能有住，以享祭物乎？至於那神主牌，人所常用，以招靈魂，未必有應，蓋一塊木頭，只寫幾字，不能感激一條靈魂，但此普度時，總無神主牌，無寫人名，無記其號，則何能招魂享祭乎？依唐人道理，此無利益，而照神天書，更為差錯也。且或有人言，和尚用法，開地獄門，放出餓鬼，以享此祭，但此等怪語，誰能信之？和尚出家，在佛祖廟內，念經學法，到底是人，而無能做非常之事，似如開盲人目，使聾人聽，令木石興動，叫死人復活，皆不能做，而若目前之事，皆做不起，則何能管及陰間之事，致開地獄門耶？陽間之監牢，似陰間之地獄，若然則請使和尚念經做法，在監牢前，看可開門放出禁人否，恐怕萬年都開不得，而若不能以念經書，開陽間監牢，則何能開陰間地獄，以此言之

則可知和尚之語，皆係空虛，而無實在者也。但凡監牢有司所管而有司官在王公手下，若王公降旨，則可得開，但百姓自專，不能開門，而空空呼叫，必無利益也。如是在陰間地獄，亦神天所管，而除其之外，無可開之，故和尚用法，都係虛勞，而空空念經，必無應驗者也。加之，人要祈神，必該清心，所行正經，所言誠實則神有聽，而准所求，但若惡人祈神，求天相助，則何能望其有效驗哉？如今之和尚，多乃惡人，會嫖賭飲，無所不至，廟內養女，佛前行淫污穢惡毒，這樣之人，本該責打，不准為和尚，則何能容之祈求於天，而神何能接其之祈禱哉？皆非也，但凡落落地獄，必不能再出，火燒雷打，救百萬年，神天降怒，永遠不止，雖極其富貴，亦不免苦難，至有學問，亦無方法，神必不饒惡人，靈魂乃在陰間，常責無息耳。一落地獄，無人可救，就是神子耶穌，亦不肯救出彼，而若耶穌極貴全能，不能開地獄，放孤魂出，何況那和尚，軟弱無力，安能有權於這樣之事哉？又那些惡人淫邪之輩，自己險落地獄之火，只過數年，則為地獄材料，焉得開門，以放人出，賜餓鬼食飯，豈有此理乎？

且多人言，此七月半，乃普度施食，救那餓鬼，但我只問，鬼既放出，則食飲何物，以救其饑急耶？這些東西，排於楸上，設在路旁，都無分與鬼食，蓋各人自己帶回幾分，養其妻子，或有賊手乞人，下賤無名之輩，爭上祭臺，搶奪祭物，而食之，總無陰鬼出於地獄，來飲食時菓，因一絲一毫無留於鬼食用者也。且或有人言，鬼無食其物，只享其味，而物雖在，其味有失矣。但此只虛浮之話，蓋那有聽食味留物之理，若味有失，物亦不見，但物尚在，味亦存留焉。試問那食物之人，看若祭後，其物有失味乎？其鹹甜酸豈變為淡乎？其肉味豈成為魚味乎，皆非也。若祭物本來有味，則常有滋味，而無人無鬼能食味休³⁷⁾物也。此都如鏡中之花，水裡之月，手不能摸，人不能捉，乃永為虛浮，無實之語也。都是虛事，總無真端，無憑無據，做以騙人，而君子之人，所不可信者也。

且多人言，此普度事，皆做好心，救好兄弟，但請爾想，若要做好心於其空設禮物，路旁排楸，名養陰鬼，實飽己腹，何如把錢分送貧人，救其危急，豈不更美哉？何用題緣，聚集錢銀，幫助死亡之孤寡，賑³⁸⁾救過世之餓鬼，所不能看，所不能聽

37) 休의 誤字로 보인다.

者，事之何益哉？都不能知其有得其物，有享其祭否，寧可出錢周濟那真孤寡，實在飢餓之活人，周圍四方，常有者也，此等若濟之，可謂好心，而功勞必爲不淺矣。但現在的人，愚蠢到極，活活之孤寡，常在目前，給其餓死，不肯相助，然其死亡之陰鬼，要費錢喪財，以救其危急，而每年設祭，以給其食享也。豈不是愚人之爲哉？豈不是棄大而取小，輕忽其近，而重其遠，目前不管，而背後致意，智慧之人，豈爲如是哉？唐人之衆，常行普度，而到底不知，那些陰鬼，有須要此物否。又若須要，亦無人知，此所獻之祭可能及到之否。又若此物能及到陰鬼，亦不能知有足用否。又若今日足用，還不知其明日將再飢否。此皆不知，都係虛浮無實之端，而唐人兄，亦喜做之，不惜錢財，不顧體面，不畏人笑，乃每年設祭，以養陰鬼，豈不可惜之至哉？至於那活活之孤寡，若要周濟之，更爲容易耳。蓋此乃目前之事，其窮人待見，其苦事待聞，可查其情由，察其憑據，看若真有艱難，則可出錢，足其使用，及周濟之後，可聽其感謝，覺其歡喜，而自心內可悅樂之至矣。惟論及那些陰鬼，雖祭之萬年，費千萬錢銀，亦不能聽其一句感謝，此等無禮之輩，濟之何益哉？

且或有言曰，人做普度，因爲怕鬼神有缺，恐其生怒，降下天災，則難得脫，似瘟疫・疾病・大旱・洪水・米貴・人死，樣樣不祥，故而題緣，做這普度，以免後災也。但求爾想想，此等災難，非陰魂所管，又非死人鬼能使之下降耳。賢者有云，死生有命，富貴在天，而耶穌《聖書》，常如此言，“天地萬物，獨一眞神管理者也。”既然如此，我不須諂媚那死人鬼，乃托仗神天則凡事齊矣。瘟疫窮苦，非鬼所招，乃天所降，故不須怕鬼，但求神天保佑也。莫言鬼能生怒，而鬧動世人，蓋紅毛和蘭，無拜陰鬼，無施食孤魂，無普度七月半之禮。而那些人都無分外之苦，鬼無煩鬧，魂無討食，乃其日夜平安，國事興旺，而百姓富矣。此都因爲地獄之鬼無權此事，而不能招災於番人之上，而若紅毛和蘭還不被其怒，則可見唐人不必施食，而亦不須怕其害也。且不止紅毛和蘭，無祭而免事，就是貴國之孔子，亦無普度，當古之聖賢，無施食陰鬼，然而無人被害，無何見責，而爾後世，何須懼哉？寧可無做那奇怪之事，周濟生活之孤寡，最有德行，奉拜天上之眞神，更有功勞，而托仗救世之耶穌，永可免害，蓋耶穌曾代人受苦・受死，以當我罪，今且復活，升到天堂，以賜福施救，

與凡信之者, 故萬勸諸兄, 止息那普度之事, 無養那陰間之鬼, 乃敬畏神天, 而全賴耶穌, 則萬事全矣.

< 參考文獻 >

《媽祖婆生日之論》 1권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普度施食之論》 1권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上帝生日論》 1권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新增三字經》 1권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英) Alexander Wylie,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67

(英) 俾烈亞力, 《1867年以前來華基督教傳教士列傳及著作目錄》,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Walter H. Medhurst, *China: its state and prospects*, JOHN SNOW, 26, PATERNOSTER ROW., 1838.

김두웅, <Medhurst 의 《조선위국자회》에 대하여>, 《국어교육》 제3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8.

서울대학교도서관,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 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蘇精, 《馬禮遜與中文印刷出版》, 臺灣學生書局, 2007.

吳義雄, 《基督教新教傳教士在華南沿海的早期活動研究(1807-1851)》, 中山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5.

莊欽永, <1819-1844年新加坡的華文學堂>, 《新加坡華人史史料考釋》, 新加坡青年書局, 2007.

조훈(Hoon Cho), <Evangelism in China by Walter H. Medhurst>, 《CHONGSHIN REVIEW》 제15집, CHONGSHIN UNIVERSITY(충신대학교), 2010.

조훈(Hoon Cho), <《찰세속매월통기전(察世俗每月統紀傳)》(The Chinese Monthly Magazine)고(考)>, 《史林》 제30집, 수선사학회, 2008.

陳正宏, <東亞漢籍版本學序說>, 《域外漢籍研究集刊》 2輯, 中華書局, 2006.

陳輝,《論早期東亞與歐洲的語言接觸》,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7.

陳輝,〈麥都思《朝鮮偉國字彙》鉤沉〉,《文獻》第1期,國家圖書館,2006.

鄒振環,〈麥都思及其早期中文史地著述〉,《復旦學報(社會科學版)》第5期,復旦大學,2003.

洪惟仁,〈麥都思《福建方言字典》〉,《臺灣文獻書目題解》第五種 語言類,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1996.

< 中文提要 >

韓國奎藏閣所藏《普度施食之論》是英國傳教士麥都思在新嘉坡書院刊行的一部西學書,也是助於我們了解當時新嘉坡地區雕版印刷情況的國內唯一的文獻資料。

本稿以奎藏閣所藏《普度施食之論》為研究對象,從文獻學的角度探討了麥都思的出版傳教生涯和雕版印刷的見解,同時分析該書的文獻特徵,印出時期,主要論述內容,以及文獻價值,并對此問題初步作了梳理。

該版本的內封左下方標記著“新嘉坡書院藏板”,并且曾與麥都思為同僚的英國偉烈亞力在《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中提及該書分別於1828年,1833年,1834年以單行本的形式印刷於巴達維亞,1834年之後在新嘉坡地區又加印一次。由此可以推定,該版本大約在1834年之後刊行於新嘉坡地區。

本書共3779個字的傳教文,是以27個問答形式而成的。其中主要記述了他把西洋基督教的耶穌《聖經》與中國的孔子《論語》對比說教,試圖清除當地人對於基督教的排斥感和華夷觀。同時我們從中可以發現早期的西學書的敘述特徵均以反對佛教文化為主要內容。

總之,該書除了留存著反映西學和中國雕版印刷技術結合、西學東漸的文化交流情況及其相應細節的珍貴文史資料,還為我們提供研究19世紀新嘉坡雕版印刷術的重要文獻之一。

關鍵詞: 普度施食之論、麥都思、新嘉坡書院、基督教、西學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5.	2013. 8. 6.	2013. 8. 19.	2013. 8. 22.	2013. 8. 31.